

연예

12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4

김건모 성폭행 혐의, 강남서가 수사



김건모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건모(51)에 대한 수사가 서울 강남경찰에서 진행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형정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보내고 수사 지휘하기로 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9일 2016년 8월 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하다 김건모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모(31) 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BTS 정국 10월 교통사고 검찰 송치



정국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이 10월에 낸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기소의견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정국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국은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트와이스 하트 셰이커 뮤비 3억뷰 돌파



트와이스

걸그룹 트와이스의 ‘하트 셰이커’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3억 건을 돌파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0일 “2017년 12월11일 발표한 트와이스 리페키지 앨범 ‘페리 앤 해피’ 타이틀곡 ‘하트 셰이커’ 뮤직비디오가 이날 오전 유튜브 3억 뷰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하트 셰이커’를 포함해 ‘우아하게’ ‘치어 업’ ‘티티’ ‘라이키’ ‘왓 이즈 러브?’까지 총 6개의 3억 돌파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엑소 레이, 中 연말 음악시상식 휩쓸어



레이

그룹 엑소 레이가 중국 연말 음악시상식을 휩쓸고 있다.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이는 8일 마카오에서 개최된 ‘2019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 어워즈’에서 ‘최정상 가수’, ‘올해의 최고 인기 중국분토 남자가수’, ‘올해의 베스트셀러 디지털앨범’까지 3개의 상을 받았다.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0 아이치이 함성의 밤’에서는 ‘아시아 만능 아티스트’, ‘올해의 음악프로듀서’상을 받았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기생충, 한국영화 첫 美 골든글로브 ‘감독·각본·최우수외국어영화상’ 3개 부문 노미네이트 의미

미국도 인정한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신호탄

아카데미상 향방 가늠할 전초전
오스카 시즌 기생충 큰 관심 끌어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역시
작품·각본·감독상 후보로 점쳐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연일 터지는 낭보를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정도다. 올해를 정리하는 영화 시상식이 연이어 열리고 있는 미국에서 잇단 수상 성과는 물론 한국영화 최초의 후보 진출 기록까지 써가고 있다. 이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만 남았다.

‘기생충’이 내년 1월5일 열리는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감독상, 각본상, 최우수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골든글로브는 그 해를 대표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대상으로 한다. 시상식 자체로도 권위를 갖지만 무엇보다 뒤이어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번 후보 진입으로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10일에도 낭보는 계속됐다. 북미방송영화비평가협회 주관으로 내년 1월12일 열리는 제25회 크리스티아노아워드에서도 최우수작품상 및 각본상, 미술상, 최우수외국어영화상 등 7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9일에는 LA비평가협회로부터 작품상, 감독상, 남우조연상(송강호)을 받았고, 뉴욕비평가



영화 ‘기생충’이 한국영화로는 처음 내년 1월5일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감독상, 각본상, 최우수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사진은 봉준호 감독(왼쪽에서 두 번째)과 주연 배우들이 5월 열린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협회와 전미비평가협회의 최우수외국어영화상까지 휩쓸었다.

‘기생충’이 현재 미국 내 시상식에서 나란히 겨루는 영화들은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일 비롯해 쿠엔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 등이다. 이들 영화는 ‘기생충’과 더불어 대다수 영화상에서 주 후보군에 공통으로 진입했고, 내년 2월 9일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는 내년 아카데미 주요 후보작을 예측하면서 ‘기생충’을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세 부문 진출을 점치기도 했다.

‘기생충’은 올해 5월 열린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프랑스, 호주, 독일 등에서 개봉했고 10월18일 북미시 공개됐다. 10월은 북미에서 이른바 ‘오스카 시즌’으로 통하는 기간으로,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을 노리는 영화들이 전진 배치되는 시기이다. 이에 맞춰 봉준호 감독도 현지에서 각종 인터뷰 및 평단

과 만남을 통해 작품을 직접 소개했고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

봉준호 감독에 집중된 수상은 갈수록 송강호와 조여정 등 주연배우들은 물론 시나리오 작가로도 이어진다. 송강호에 이어 조여정은 뉴멕시코비평가협회가 선정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고, 봉준호 감독과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한 한진원 작가도 골든글로브 각본상 후보에 올랐다. 한국 시나리오 작가로는 첫 후보 진출이다.

이해리 기자 gol1024@donga.com

조보아, 화사한 외출



조보아의 ‘브이!’. 연기자 조보아가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화장품 론칭 행사에 참석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양 손으로 귀엽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화이트 롱 슬리브를 입고 검은색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조보아는 특유의 청순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백종원 연예대상 타나

골목식당·맛남의 광장 등 화제만발
28일 SBS 연예대상 수상 여부 관심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올해 연말에는 예능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트로피를 안을 수 있을까. 지난해 불발돼 각종 추측과 뒷말을 낳은 백종원의 연예대상 수상 여부에 시청자의 궁금증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다.

단연 시선을 모으는 무대는 28일 열리는 ‘2019 SBS 연예대상’이다. 백종원은 올해 SBS를 주요 무대 삼아 활동했다. 특히



백종원

2018년 1월 시작해 방송 중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이어 5월 새로운 예능프로그램 ‘맛남의 광장’의 방송을 시작하기도 했다. ‘골목식당’은 최고 시청률 10.4%(1월9일·닐슨코리아)를 돌파하는 등 대히트 화제를 만들고 있다. ‘맛남의 광장’도 9월 추석특집 파일럿으로 선보였다가 시청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정규편성 됐다. “다양한 요리 방법을 공개해 국내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겠다”는 백종원의 의지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1회 시청률은 5.9%를 기록했다.

SBS에서만 두 편의 예능프로그램을 이끄

는 백종원은 자연스럽게 유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방송가에서는 백종원의 수상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작년에 ‘골목식당’ 열풍에 힘입어 대상 후보 명단에 올랐으나 무관해 그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백종원이 후보에 오를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종원은 그동안 인터뷰를 비롯한 공식석상에서 “방송 활동의 목적은 요식업 부흥을 위해서”라며 그 외 수상 등에는 부담감을 드러내왔다.

한 방송관계자는 10일 “백종원은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라면서도 “수상 여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지상파 첫 시즌제 위해 다시 뭉친 ‘검법남녀’

정재영·정유미·오만석 합류
‘한국판 CSI’ 시즌3 준비 박차

지상파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시즌3에 착수한 MBC 드라마 ‘검법남녀’가 내년 방송을 목표로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로 주연 배우들은 물론 연출진도 다시 뭉쳤다.

‘검법남녀’는 2018년 시작한 시즌1에 이어 올해 6월 방송한 시즌2까지 연이어 성공을 거뒀다.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이 전례적으

로 하락한 상황에서 시즌1, 시즌2가 각각 9.6%(닐슨코리아), 9.9%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해 주목받기도 했다.

드라마는 법의학자와 검사를 두 주인공으로 내세운 범죄 추리극이다. 회마다 새로운 사건을 내세우고 이를 하나의 큰 사건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이었다. 미국의 인기드라마 ‘CSI’ 시리즈와도 비슷해 ‘한국판 CSI’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시리즈 드라마 제작을 좌우하는 배우들의 의지도 단단하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주연배우 정재영·정유

미·오만석은 일찌감치 시즌3 출연을 결정했다.

시즌 1, 2편을 연출한 노도철 PD 역시 올해 여름부터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소재 발굴을 위한 자료와 현장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즌2를 마치고 MBC를 퇴사해 ‘검법남녀’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로 이직한 노도철 PD는 10일 “전편의 반박이 되지 않도록 새 이야기와 인물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배우들과 제작진의 최종 목표는 ‘검법남녀’를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시즌제 드라마로 구축하는 일이다. ‘검법남녀’ 시즌3는 현재 MBC와 내년 하반기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1박2일’ 새 허당 김선호의 변신 선언

당분간 연기보다 예능에 집중
‘1박2일’ 첫 방서 신선함 어필

연기자 김선호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도약을 꿈꾼다.

김선호가 10일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를 끝으로 새로운 무대인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년 1월19일까지 진행되는 연극 ‘메모리 인 드림’ 무대까지 마무리한 뒤 예



김선호

능에 주력하면서 미처 보이지 않은 매력으로 시청자에 다가갈 생각이 다.

이제 막 안방극장에 안착한 김선호에게 예능은 새로운 모습을 보일 최적의 무대다. 드라마보다 예능은 상대적으로 실제 성향이나 일상의 모습을 드러낼 기회가 많아 대중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선호가 택한 ‘1박2일’은 다

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어 인기도 상승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호는 ‘1박2일’이 방송을 재개한 8월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방송 직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등 시청자의 궁금증도 김선호에게 쏠리고 있다. 이에 힘입어 김선호는 그만의 캐릭터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허당’의 매력을 드러내면서 ‘예능 초보’ 캐릭터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2017년 KBS 2TV 드라마 ‘김과장’을 시작으로 ‘최강배달꾼’ ‘투깝스’ ‘백일의 낭군님’ 등 2년간 착실히 활동하면서 얻은 신뢰도 이런 관심을 이끌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